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김명소 · 김혜원 · 차경호

호서대학교

최근 들어,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Ryff와 Keyes(1995)에 의해 제기된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요인구조가 우리나라 성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하고, 셋째, 둘 간의 관계가 성이나 연령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0대에서 70대까지의 성인 남녀 5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존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6요인 모델이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의 3요인 모두에 대해서 심리적 안녕감 요인 중 자아수용과 환경통제력 요인은 가장 높은 상관관계와 큰 설명력을 갖고 있었으나, 서구의 연구결과와 달리 긍정적 대인관계가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는 젊은 층의 경우 자아수용성과 환경통제력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자아수용성과 함께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과 긍정적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남성의 경우 삶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서는 개인적 성장요인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기존결과와의 비교 분석과 함께 연구의 제한점 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구성개념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 그리스 시대 이래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행위의 궁극적인 동기는 행복의 추구라고 여겨 왔고, 모든 국가나 사회는 구성된 개 개인의 행복 또는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여 왔다. 따라서 한 국가나 사회의 기능은 그 구성된 개개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에 의해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나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경주한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사회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삶의 질을 평가하려는 초기의 노력은 주로 개인당 평균소득(GNP)과 같은 삶의 경제적인 또는 물질적 측면만을 고려하였으나 1960년대부터 사회과학자들은 삶을 보다 잘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 정치 참여도, 또는 인구의 증가나 이동과 같은 인구사회적 지표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표준화된 객관적 인구사회적 변인들을 사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이라는 이름 하에 활발히 진행되어 많은 자료들을 축적하여 왔다 (Dudley Duncan, 1969). 그러나 삶의 질 또는 행복이란

개개인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지표운동은 단지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되는 객관적 지표들을 평가할 뿐 정작 개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질은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의 한계 때문에 많은 사회과학자들 특히 심리학자들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는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개개인의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Cantril, 1965; 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1976). 이러한 연구들은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또는 행복(happiness) 등의 다양한 용어로 진행되어 왔다.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여러 연구들은 주관적 안녕감이 두개의 일반적인 측면, 즉 정서적(affective) 요인과 인지적(cognitive) 요인으로 나누어짐을 보여준다(Diener, 1984; Emmons & Diener, 1986; Diener & Diener, 1995; Myers & Diener, 1995;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정서적 요인은 정적(positive) 정서와 부적(negative) 정서를 포함하며(Diener and Emmons, 1984), 인지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를(Andrews & Withey, 1976) 일컫는다. 물론,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많은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도구들은 두 측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도 요인과 정서적 요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때때로 독립적으로 변하며 여러 다른 변인들과 서로 다른 관계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Stock, Okun, & Benin, 1986; Pavot & Diener, 1993). 즉,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이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이 두 요인을 독립적으로 측정했을 때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서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판단 과정을 말한다(Shin & Johnson, 1978). 자신이 설정한 기준과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여건들을 비교하여 삶의 여건들이 기준과 일치한다면 삶의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이다. 정서적 요인은 삶의 여건에 대한 정적 정서반응과 부적 정서반응을 모두 포함하는 데 그 이유는 여러 연구들이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가 서로 독립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Bradburn, 1969; Diener & Emmons, 1984; Diener & Larsen, 1984; Emmons & Diener, 1985).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높은 삶의 만족도, 적은 부적 정서경험, 그리고 많은 정적 정서경험을 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 특히 Ryff(1989; Ryff & Keyes, 1995; Schmutte & Ryff, 1997)는 삶의 질을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해하려는 위와 같은 입장에 대하여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주관적 안녕감이 갖고 있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한 개인이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있는 정도가 삶의 질을 대표한다는 주관적 안녕감의 기본 골격에 반기를 든다. 즉,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 단지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제안한다. 대신 이들은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well functioning)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좋은 또는 바람직한 삶(good life)에 관한 임상, 상담, 그리고 발달 심리학에서의 여러 이론들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Ryff(1989)는 Maslow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Rogers의 완전히 기능하는 개인(fully functioning person), Jung의 개성화(individuation), Allport의 성숙(maturity), Erikson의 기본적 삶의 경향(basic life tendencies), 그리고 Neugarten의 성격의 변화(personality changes) 등의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6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개발하였고 이것이 측정하는 삶의 질을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라 하였다. 6개 차원은 구체적으로 자아수용성(self acceptance : SA),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 : PR), 자율성(autonomy : AU),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 EM),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 PL),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 PG)을 포함한다. 즉, 심리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과 달리 이론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혹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Ryff와 그녀의 동료들(Ryff, 1989; Ryff & Keyes, 1995; Schmutte & Ryff, 1997)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6개의 차원들의 구성개념 타당도와 함께 이들 차원들이 삶의 질을 잘 대표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321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Ryff(1989)는 6개 차원으로 구성된 심리적 안녕감 척도와 이제까지 주되게 사용되어 온 주관적 안녕감 척도들(정서균형 척도,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사기(morale), 통제감, 우울정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척도들간의 관계성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척도들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자아수용성과 환경지배력은 기존의 주관적 안녕감 척도들과 함께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지만 나머지 4개의 심리적 안녕감 차원들은 새로운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Ryff는 '행복'에만 초점을 둔 주관적 안녕감 척도에 비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척도가 주관적 삶의 질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했다.

또한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의 6차원들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이 서로 상이함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환경 통제력과 자율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보여준다. 자아수용과 긍정적 대인관계는 연령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심리적 안녕감을 이루는 6차원들이 서로 관련성을 보이지만 개념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차원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국단위의 대단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Ryff와 Keyes(1995)는 Ryff(1989)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심리적 안녕감의 6차원에 대하여 확정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가

6개의 심리적 차원으로 구성되어짐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심리학적인 이론적 틀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기존의 주관적 안녕감 개념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대한 폭 넓은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즉, 행복하다는 것 이외에 개인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의 정도, 대인 관계에서의 만족도, 자기실현의 정도와 같이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다룸으로써 주관적 삶의 질을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삶의 질과 문화적 배경

한편 Markus와 Kitayama(1991)는 문화에 따라 자기(self)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또한 이 둘 간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에 많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개인은 매우 다른 인지적, 정서적 경험을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동양문화권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중요하지만 서양문화권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내적인 특성들을 표현함으로써 타인과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Hofstede, 1991; Triandis, 1995).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많은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조명한, 차경호, 1998; Diener & Suh, 2000, 참조). 다양한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Diener & Diener, 1995; Kwan, Bond, & Singelis, 1997; Oishi, Diener, Lucas, & Suh, 1999)에서는 문화권의 집단주의적, 개인주의적 경향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이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 의 정적 상관은 집단주의 국가에 비하여 개인주의 국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며(Diener & Diener, 1995), 타인간의 원만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도와 의 정적 상관은 개인주의 국가에 비하여 집단주의 국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Kwan, et al., 1997).

마찬가지로 차경호(1999)는 서양 문화권에서 비교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양상을 갖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남녀 대학생 37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Ryff(1989; Ryff & Keyes, 1995)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안녕

감의 6개 영역 중 자아수용성과 환경통제력이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자율성과 개인적 성장은 삶의 만족도와 낮은 상관을 보였다. 정적 정서와는 자아수용성과 긍정적 대인관계가 비교적 강한 상관을 보였고 역시 자율성과 개인적 성장은 비교적 약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 부정 정서와는 환경통제력이 비교적 강한 상관을 보였고 자아수용과 자율성이 비교적 약한 상관을 보였다.

이와 함께 주관적 안녕감의 영역들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심리적 안녕감 영역들을 설명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삶의 만족도에 대해 자아수용성과 환경적 통제력만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인 것으로 나타나 서양문화권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긍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인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대인관계와 자율성의 중요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서양문화권에서의 결과(Ryff, 1989)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자율성은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도 환경통제력과 개인적 성장, 자율성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나 Ryff(1989)의 결과에서 개인적 성장의 중요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바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양문화권에 비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독립성 또는 자율성보다는 개인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긍정적 대인관계는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자율성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적 배경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은 주관적 삶의 질의 구성요소를 파악하는데 있어 다양한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이 서양 문화 특히 개인주의적 문화에 기초한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Christopher, 1999),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밝히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심리적 측면들이 과연 집단주의적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검토이다. 최근 김혜원과 김명소(2000)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을 대상으

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가 Ryff와 Keyes(1995)의 결과와 동일하고 보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소를 검토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Ryff(1989)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소들이 우리나라 일반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도 적합한 구조를 갖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양에서 제기된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확정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삶의 질의 구성요소를 밝히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작업으로 과연 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안녕감(주관적 안녕감)과 심리학적 개념들에 비추어 판단된 안녕감(심리적 안녕감)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위의 구조가 우리나라 성인 남녀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이들의 연령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파악이다. 특히 Ryff와 Keyes(1995)는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이 서로 구별된다는 하나의 증거로 이들 차원들이 연령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들이 연령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보이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Ryff와 Keyes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이제까지의 삶의 질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결과는 상당히 비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Medley, 1980; 조명한, 차경호, 1998) 더 많은 연구결과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연구들 특히 국내의 연구들 중 다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일반인들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에는 성별과 함께 연령변인이 함께 영향을 준다는 점(Ryff, 1989)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각 차원들이 각 연령대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방 법

조사대상자

설문지를 통하여 응답자들에게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

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보고하게 하였다. 이들은 20대에서 70대까지인 성인 남녀로 이들이 보고한 총 578개의 응답자료가 분석되었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 578명 중 남성이 282명(48.8%), 여성이 296명(51.2%)이었고, 연령별로 20대가 전체의 25.2%, 30대가 22.4%, 40대가 27.6%, 50대가 19.9%, 그리고 60대 이상이 4.8%의 비율을 보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기혼이며(81.0%), 미혼 대상자는 19.0%에 해당하였다. 교육정도에 따른 응답자 수를 보면 고졸(37.5%)과 대졸(37.0%)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졸 및 초등학교 졸업자도 전체의 14.5%를 차지하였고 대학재학생의 비율이 11%에 해당되었다. 거주지 별로는 서울(32.4%), 경기도(39.4%), 충청도(25.4%), 기타(2.8%) 순의 분포를 보였다. 한편 월 평균 가구수입은 '100-199만원'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고(40.8%), 그 외의 층은 '200-299만원'(26.9%), '100만원 미만'(12.7%), '300-399만원'(11%), '400만원 이상'(8.6%) 순이었다. 직업과 관련되어서는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가 전체의 49.9%를 차지하고 있어, 직업을 가진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가 거의 반반을 이루고 있었다.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들 중에서는 사무직(10.3%), 판매직(9.8%), 전문관리직(9.1%), 서비스직(6.0%)의 순서로 비율이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자영업(21.1%), 일반사무직(12.9%), 기술/엔지니어직(11.4%), 대학생(10.7%), 판매/서비스직(6.4%) 순이었다.

조사도구

1) 주관적 안녕감(SWB)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의 3가지 영역을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Diener 등(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 SWLS)를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삶의 만족도 척도는 7점 척도(1 : 매우 반대한다 ~ 7 : 매우 찬성한다)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측정을 위해서는 정서 빈도검사를 사용하여 지난 한 달 동안의 정적인 정서와 부적인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

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없었다 ~ 7 : 항상 그랬다)에 표시하게 하였다. 정적정서는 기쁨, 자부심, 애정, 만족감의 4가지 정서를 포함하고 있고 부적정서는 공포, 화냄, 슬픔, 죄책감의 4가지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2) 심리적 안녕감(PWB)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 PWBS)를 Ryff 등(Ryff, Lee, & Na, 1993, Ryff & Keyes, 1995 재인용)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PWBS는 6개의 차원을 포함하는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차원은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이다. 각 차원에 대한 정의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부록 1). 본 연구에서는 54문항으로 구성된 심리적 안녕감 척도에 대해 대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계수 α 와 문항 제거 후의 α , 문항 - 총점 상관계수, 요인부하량 등을 기준으로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각 척도당 7~8개 문항씩 46문항을 선별하였다(부록 2).

자료분석

먼저,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각 변인들의 일개념성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과 함께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Ryff와 Keyes(1995)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 8.0을 이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LISREL 8.12(Joreskog & Sorbom, 1993)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수 추정방식은 본 연구의 공변량 구조분석에 사용될 측정변인이 개별문항 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개별 측정변인의 정상성과 다변량 정상성을 가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비가중 최소자승법(UL : Unweighted Least Square Method)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부합도는 다변량 정규분포의 위반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부합치(GFI), 조정부합치(AGFI), 표준부합치(NFI), 원소간의 평균차이(RMR)를 함께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로는 공변량 행렬을 이용하였다(부록 3). 뿐만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 및 다중회귀 분석

을 실시하였다.

결 과

하위척도분석

주관적 안녕감의 3가지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81(삶의 만족도), .82(긍정적 정서), .67(부정적 정서)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척도의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76(자아수용), .72(긍정적 대인관계), .73(삶의 목적), .70(개인적 성장), .69(자율성), .66(환경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의 3개 변인들의 일개념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3 변인 모두에서 아이겐 값이 1보다 큰 요인이 하나씩 도출되었고 요인부하량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각 이론변인을 측정하는 측정변인들의 수렴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일개념성 분석 결과, 6개중 4개의 변인들에서 아이겐 값이 1보다 큰 요인이 하나씩 도출되었고, 각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측정변인들의 수렴타당도가 지지되었다. 주성분 분석 결과 2개의 요인이 도출된 변인은 환경통제력과 개인적 성장이었는데, 환경통제력 척도는 두 번째 요인이 역방향(reverse)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방법 요인(method factor)으로 나타나 내용상으로는 동질적 변인을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 성장척도는 내용면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장·발전되고 있음을 느낀다는 측면(성취감)과 앞으로의 변화의지 및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측면(변화의지)으로 나누어 졌다.

그 외에도 척도간 상관관계는 중간정도의 크기를 보였는데, 자기수용과 환경통제간의 관계가 .6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긍정적 대인관계와 자율성간의 상관계수는 .30으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는 Ryff와 Keyes(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자기수용과 환경통제는 매우 밀접한 변인임을 다시 한번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인구통계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차이분석

먼저, 연령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각 요인들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간 F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

연령집단은 Ryff와 Keyes(1995)가 사용한 분류기준인 청년기(20대), 중, 장년기(30-50대), 노년기(60대 이상)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 중 개인적 성장 변인에서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성장과 삶의 목적은 연령에 따라 감소하나 긍정적 대인관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서구의 기존 연구들과(예 : Ryff, 1989; Ryff & Keyes, 1995)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자율성과 환경지배력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유의미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수용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청년기보다 중,장년의 연령에서 약간 낮아지다가 노년기에 다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1. 심리적 안녕감 요인들에 대한 연령별 평균차이검증 결과

변 인	연 령			F 값
	20대 (N=152)	30대-50대 (N=389)	60대 이상 (N=36)	
자 율 성	3.76	3.79	3.85	0.13
환경통제력	3.88	3.91	4.00	0.50
개인적성장	4.10 ^a	3.79 ^b	3.57 ^b	15.00***
삶의목적	4.25	4.13	4.07	1.77
대인관계	4.30	4.18	4.15	1.90
자기수용	3.82	3.80	3.98	0.87

* $p < .05$, ** $p < .01$, *** $p < .001$

- 주1. 같은 문자가 없을 경우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주2. 표본 크기의 불균형 문제로 인해 연령을 20대, 30-40대, 50대 이상과,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재분류해본 결과 분석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6요인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자율성, 개인적 성장, 및 삶의 목적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 대인관계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

표 2. 심리적 안녕감 요인들에 대한 성별 평균차이검증 결과

변인	성별		F값
	남성 (N=281)	여성 (N=296)	
자율성	3.88 ^a	3.72 ^b	9.52**
환경통제력	3.94	3.88	1.63
개인적성장	3.96 ^a	3.76 ^b	12.65***
삶의목적	4.23 ^a	4.09 ^b	6.59*
대인관계	4.20	4.21	0.05
자기수용	3.85	3.78	1.79

* p<.05, ** p<.01, *** p<.001

- 주. 같은 문자가 없을 경우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또한 연령과 성 이외의 인구통계적 변인들 중 교육정도 에 의한 심리적 안녕감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 이 높을수록 환경통제력(F=3.36, p=.0098), 개인적 성장 (F=8.88, p=.0001), 삶의 목적(F=3.63, p=.0062), 긍정적 대인관계(F=7.57, p=.0001), 그리고 자아수용(F=4.00, p=.0033)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 율성은 학력에 영향을 받고있지 않았다.

반면, 가구 총수입은 환경통제력(F=4.56, p=.001), 자 아수용(F=2.93, p=.020), 및 긍정적 대인관계(F=2.57, p=.037)에 영향을 미쳐, 수입이 많을수록 환경통제력과 자아수용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 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결혼여부에 따라서 개인적 성장감을 다르게 느끼고 있었는데 (F=12.98, p=.0003), 즉, 미혼이 기혼보다 개인적 성장감이 높았다.

확증적 요인분석

예비조사로부터 측정모델에 포함되는 문항으로 최종 적으로 선정된 46문항들(자아수용 요인 8개, 긍정적 대 인관계 요인 7개, 자율성 8개, 환경통제력 8개, 삶의 목 적 7개, 개인적 성장 8개 문항)에 대하여 578명의 자료 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변수 들이 여섯 가지 요인들을 잘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각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오직 해당 요인에만 부하되도록 했으며, 잔차들 간에는 모두 상관이 없고 모든 요인들 간에는 상호 상관이 존재하는 모델을 설정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각 요인의 일개념성 확인을 위 해 앞에서 실시한 주성분 분석시 개인적 성장에서 통계

적으로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기 때문에 6개 요인으로 구성된 측정모델 이외의 대안모델로 7개 요인 모델을 설정하였다. 각 측정모델들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로부터 얻은 요인계수행렬은 부록 4와 5에 제시되었고, 네 가지 부합도 지수들은 표 3에 제시하였 다.

표 3. 6개요인 모델, 대안 모델(7개요인), 및 최종 6개요인 모 델의 전반적 부합도 지수들

측정 모델	GFI	AGFI	NFI	RMR
6개요인 모델	.920	.911	.883	.063
7개요인 모델	.927	.919	.895	.058
최종6개 요인모델	.930	.921	.897	.060

표 3에서 보듯이 6개 요인과 7개 요인으로 구성된 두개의 측정모델의 GFI, AGFI는 모두 .90 이상으로써 좋은 부합도를 보이고 있고, NFI도 좋은 측정모델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수준인 .80(Hai, Anderson, Tatham, & Black, 1995)을 넘었다. RMR도 부합도의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05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네 가지 부합도 지수들로서 비교해 볼 때 두 모델 모두 적 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 모델을 비교해 본다면, 7개요인 모델이 수치상의 부합도 측면에서 약간 더 우 세하나, 각 요인들간의 관계성 및 주관적 안녕감과외의 관계성을 분석해 보면 내용 면에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 성장변인을 성취감과 변화의 지의 두 측면으로 나눌 때, 변화의지 요인은 다른 심리 적 안녕감과외의 상관이 낮아 수렴타당도가 의심될 뿐 아 니라(.12~.38), 주관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 서, 부정적 정서)과의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 .02, .18, .04), 이 요인 단독으로는 삶의 질이라는 구성개념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6요인 심리적 안녕감 모델의 요인계수행렬을 살펴보면(부록 3), 개인적 성장 8문항 중 2문항의 요인 계수가 .30미만을 보이고 있어 이들 문항을 제거한 결 과, .930(GFI), .921(AGFI), .897(NFI), .060(RMR)과 같이 좀더 양호한 부합도 지수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 서, 최종적으로 개인적 성장 문항 2개를 제외한 44개

문항을 바탕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도출된 6개요인 모델에 대한 요인계수행렬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확장적 요인분석 결과 : 측정모델의 요인 계수 행렬

문항 번호	요인1 (자아수용)	요인2 (긍정적 대인관계)	요인3 (자율성)	요인4 (환경통제)	요인5 (삶의 목적)	요인6 (개인적 성장)	SMC
SA1	0.45	--	--	--	--	--	.17
SA2	0.66	--	--	--	--	--	.44
SA3	0.47	--	--	--	--	--	.22
SA4	0.48	--	--	--	--	--	.23
SA5	0.61	--	--	--	--	--	.37
SA6	0.65	--	--	--	--	--	.42
SA7	0.58	--	--	--	--	--	.34
SA8	0.53	--	--	--	--	--	.28
PR1	--	0.40	--	--	--	--	.16
PR2	--	0.52	--	--	--	--	.27
PR3	--	0.59	--	--	--	--	.34
PR4	--	0.59	--	--	--	--	.34
PR5	--	0.48	--	--	--	--	.23
PR6	--	0.53	--	--	--	--	.27
PR7	--	0.56	--	--	--	--	.31
AU1	--	--	0.65	--	--	--	.42
AU2	--	--	0.42	--	--	--	.18
AU3	--	--	0.46	--	--	--	.21
AU4	--	--	0.44	--	--	--	.20
AU5	--	--	0.45	--	--	--	.20
AU6	--	--	0.64	--	--	--	.41
AU7	--	--	0.41	--	--	--	.17
AU8	--	--	0.39	--	--	--	.15
EM1	--	--	--	0.47	--	--	.22
EM2	--	--	--	0.43	--	--	.18
EM3	--	--	--	0.53	--	--	.28
EM4	--	--	--	0.41	--	--	.17
EM5	--	--	--	0.53	--	--	.28
EM6	--	--	--	0.58	--	--	.33
EM7	--	--	--	0.36	--	--	.13
EM8	--	--	--	0.44	--	--	.19
PL1	--	--	--	--	0.52	--	.27
PL2	--	--	--	--	0.44	--	.19
PL3	--	--	--	--	0.64	--	.41
PL4	--	--	--	--	0.47	--	.22
PL5	--	--	--	--	0.55	--	.30
PL6	--	--	--	--	0.58	--	.33
PL7	--	--	--	--	0.62	--	.38
PG1	--	--	--	--	--	0.26	.07
PG4	--	--	--	--	--	0.63	.40
PG5	--	--	--	--	--	0.69	.48
PG6	--	--	--	--	--	0.32	.11
PG7	--	--	--	--	--	0.59	.35
PG8	--	--	--	--	--	0.36	.13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먼저,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 요인들간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삶의 만족도와는 자아수용(.60)과 환경통제력(.47)이 가장 강한 상관을 보인 반면, 자율성(.25)과 개인적 성장(.33)이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였다.

긍정적 정서와는 자아수용(.49)에 이어서 삶의 목적(.43), 긍정적 대인관계(.41), 개인적 성장(.39)과 환경적 통제력(.38)의 순으로 강한 상관을 나타냈고, 자율성(.18)과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을 보였다. 한편, 부정적 정서에서는 환경통제력(-.35)과 자아수용(-.30)이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율성(-.24)과 개인적 성장(-.11) 요인이 비교적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두 가지 안녕감 변인들간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 6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주관적 안녕감 3요인을 준거변인으로 하여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어떤 측면의 심리적 기능 혹은 정신건강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안녕감 요소인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6).

표 5.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상관관계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자아수용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1. 삶의 만족도									
2. 긍정적 정서	.56**								
3. 부정적 정서	-.23**	-.17**							
4. 자아수용	.60**	.49**	-.30**						
5. 긍정적 대인관계	.37**	.41**	-.28**	.56**					
6. 자율성	.25**	.18**	-.24**	.39**	.30**				
7. 환경 통제력	.47**	.38**	-.35**	.64**	.54**	.44**			
8. 삶의 목적	.42**	.43**	-.28**	.60**	.52**	.48**	.61**		
9. 개인적 성장	.33**	.39**	-.11*	.47**	.42**	.39**	.43**	.58**	

* p<.05, ** p<.01

표 6에 제시되어 있듯이, 삶의 만족도에서는 자아수용과 환경통제력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으며, 특히, 자아수용은 삶의 만족도 전체 분산의 37%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와는 대부분의 심리적 안녕감 요인들이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자아수용,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

표 6.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Delta R^2, \beta$)

	긍정적정서	부정적정서	삶의만족도
전체 (N=578)	자아수용(.243, .304***)		
	개인적성장(.033, .139**)	환경통제력(.123, -.276***)	자아수용(.371, .520***)
	긍정적대인관계(.018, .160**)	긍정적대인관계(.013, -.137**)	환경통제력(.011, .139**)
	자율성(.006, -.109**)	자아수용(.009, -.127*)	
	삶의목적(.006, .124*)		
남성 (N=281)	자아수용(.230, .277***)	삶의목적(.107, -.202**)	자아수용(.344, .474***)
	긍정적대인관계(.041, .191**)	환경통제력(.022, -.194**)	환경통제력(.017, .172**)
	삶의목적(.014, .156*)		
여성 (N=296)	자아수용(.256, .361***)	환경통제력(.141, -.315***)	
	개인적성장(.037, .227***)	개인적성장(.015, .182**)	자아수용(.406, .639***)
	긍정적대인관계(.016, .159**)	자아수용(.021, -.201**)	
	자율성(.011, -.116*)		

* p<.05, ** p<.01, *** p<.001

적 순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분산은 30% 정도였다. 또한 환경통제력, 자아수용, 및 긍정적 대인관계 변인들이 부정적 정서를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 설명분산(14%)은 위의 변인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적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관계분석 결과(표 6), 여성의 경우 자아수용과 환경 통제력 외에 개인적 성장이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에 있어서는 심리적 안녕감 중 삶의 목적 변인이 상대적으로 그 설명력이 크다는 점도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가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계별 회귀 분석을 각 연령집단에 실시하였다(표 7). 결과에 따르면, 20, 30대의 경우 자아수용과 환경통제력이 주관적 안녕 감의 요인들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홍 미롭게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아수용, 삶의 목적, 긍정 적 대인관계 및 개인적 성장이 좀 더 중요한 예측변인 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노년기의 경우 개인 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요인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개인적 성장 요인 하나가 이들의 삶의 만족을 50%나 설명하고 있다

표 7. 주관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연령별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R, β 값)

연령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20대 (N=152)	자아수용(.393, .505***)	자아수용(.192, .318***)	환경통제력(.117, -.342**)
30대 (N=127)	자아수용(.313, .413***) 환경통제력(.027, .219*)	자아수용(.303, .422***) 개인적 성장(.042, .241**)	환경통제력(.131, -.362***)
40대 (N=149)	자아수용(.385, .621***)	자아수용(.275, .524***)	환경통제력(.120, -.347***)
50대 (N=113)	자아수용(.338, .469**) 개인적 성장(.026, .196*)	개인적 성장(.349, .378***) 자아수용(.092, .370**)	자율성(.174, -.287**) 환경통제력(.036, -.231*)
60대 이상 (N=36)	개인적 성장(.503, .504***) 긍정적대인관계(.171, .462*)	긍정적 대인관계(.349, .437***) 개인적 성장(.097, .348*)	삶의 목적(.262, -.512**)

* p<.05, ** p<.01, *** p<.001

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긍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자아수용과 개인적 성장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삶의 만족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성장과 함께 긍정적 대인관계가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환경통제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반면 60대에서는 삶의 목적만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논 의

국가의 경제적인 성장이나 부의 증가가 실제로 각 구성원의 삶의 질을 증진시켰는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1990년대 들어 국내에서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조명한, 차경호, 1998).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제안된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 3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일반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삶의 질의 구성요소를 밝히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작업으로 과연 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안녕감(주관적 안녕감)과 심리학적 개념들에 비추어 판단된 안녕감(심리적 안녕감)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고, 세 번째, 위의 구조가 우리나라 성인 남녀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이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먼저, 삶의 질의 주관적인 영역이 과연 어떠한 구성개념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심리학 이론들에서 제기된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심리적 안녕감이 과연 서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6개의 구성요소를 갖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자아수용, 환경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이라는 6가지 요인을 포함하는 모델이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이 하나의 상위 요인으로 수렴됨을 보고한 국내외의 결과(Ryff & Keyes, 1995; 차경호, 1999; 김혜원, 김명소, 2000)와 일치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삶의 질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양립적인

개념인 심리적 안녕감(PWB)과 주관적 안녕감(SWB)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두 개념간의 단순상관관계 분석과 주관적 안녕감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주관적 안녕감의 3요인 모두에 대해 자아수용과 환경통제력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자율성과 개인적 성장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수용과 환경 통제력이 주관적 안녕감과 가장 밀접한 요인인 반면 자율성과 개인적 성장요인이 낮은 상관을 보인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차경호, 1999; 김혜원, 김명소, 2000). 그러나 특히 주목해야 할 결과는 주관적 안녕감의 3요인 각각과 심리적 안녕감의 6요인들과의 전반적인 상관관계 패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회귀분석에서도 주관적 안녕감의 3요인 각각을 설명하는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들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고 있는 6요인들이 서로간에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만 이들 요인이 서로 변별될 수 있는 구성개념들을 시사한다.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몇 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전체집단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자아수용 한 요인의 설명력은 37%나 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전체 분산이 모두 합쳐서 15% 정도라는 기존의 결과들을 고려할 때 (Diener, 1984) 자아수용이라는 단일 요인의 설명력은 매우 크다고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주관적 안녕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결과 중 두 가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모두에 대해 서구의 결과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긍정적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긍정적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국내 대학생이나(차경호, 1999)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혜원, 김명소, 2000)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 결과이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두 번째 결과는 차경호(1999)에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정서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자율성의 β 값의 부호가 음수라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 정

서에 대한 자아수용, 개인적 성장, 그리고 긍정적 대인관계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긍정적 정서와 자율성의 상관성이 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율성의 독자적인 영향력은 부적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가지 결과는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라기보다는 개인들간의 상호의존성과 집단의 규칙이나 규범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이다(Hofstede, 1991; Triandis, 1995). 그러므로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구에 적합하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를 더 자주 경험하지만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구와 충돌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 정서를 덜 경험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긍정적 정서에 대한 자율성의 부적 영향이 여성집단에서만 나타났고 남성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즉, 일반적으로 여자에게는 남자에 비하여 대인관계의 발달을 더 강조하며 개인주의나 자율성의 발달은 덜 강조하기 때문에(Gilligan, 1993) 여성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억압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변인들이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한다(Diener & Diener, 1995; Kwan, et al., 1997; Oishi, et al., 1999).

마지막으로, 주관적 안녕감(SWB)과 심리적 안녕감(PWB)의 관계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과 관련해서 볼 때,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아수용과 환경통제력은 남녀를 따로 보았을 때도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자아수용)과 자신의 삶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환경통제력)은 우리나라 성인남녀 모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녀 집단간에는 예측변인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자아수용과 환경통제력 외에 개인적 성장이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인 반면, 남성에게는 심리적 안녕감 중 삶의 목적 변인이 상대적으로 그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게는 인생목표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활동(삶의 목적)이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한편, 여성에게는 이제까지 자신이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는 확신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그러한 변화의지가 있다는 것(개인적 성장)이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여성집단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개인적 성장요인은 긍정적 정서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와도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를 해석하면, 성인여성들은 개인적 성장을 더 추구할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낄 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집단에서는 어느 요인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던 국내의 기존연구 결과(김혜원, 김명소, 2000)와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자기발전 및 성장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현 삶의 방식을 개선하고자 할수록 여성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부정적 정서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 성장과 부정적 정서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한과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두 변인의 관계가 부적 상관을 보이는 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던 선행연구(Ryff, 1989)를 보아도 이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개인적 성장요인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주성분 분석 결과 개인적 성장 변인은 자신의 성장·발전에 관한 성취감과 새로운 변화와 개선에 관한 동기 및 의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만일 두 요인을 별도로 취급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다면 서로 다른 방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 첫 번째 요인인 성취감은 예상대로 부정적 정서와 부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개선동기 및 의지 요인은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와 정적 관계를 보이는데는 개인적 성장변인의 두 번째 요인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번째 요인은 성격의 5요인 중 '개방성(Openness; O)'과 개념적으로 일치한다. 개방성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 또는 새로운 것에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개방성이 낮은 사람에 비하여 삶의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 모두를 더 빈번히 경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McCrae & Costa, 1991).

다음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대한 연령별 양상을 살펴본 결과, 젊은 층의 경우 자아 수용과 개인적 성장 및 환경통제력이 주관적 안녕감 요인들에 대한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나, 흥미롭게도 연령이 증가하면서는 이러한 변인들과 함께 긍정적 대인관계나 삶의 목적 및 삶의 목적이 좀 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노년기의 경우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요인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김혜원, 김명소, 2000).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이 노년층 삶의 질에 대해 갖는 중요성은 개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인생에 대한 목표감이나 개인적 성장감이 떨어진다는 선행결과(Ryff, 1989)를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들을 세우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인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과 함께 노년층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긍정적 대인관계'는 흥미롭게도 기존의 국내 연구결과(김명소, 김혜원, 2000)와는 일치하나, 서구의 결과들(예: Ryff, 1989; Ryff & Keyes, 1995)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바이다. 우선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나타난 것은 앞서 제시했듯 우리나라의 집단주의적 문화배경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특히 노년층에서만 두드러진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급격히 퍼져가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과거 집단주의적 문화권속에서 성장한 노년층과 비교하여 지금의 젊은층에게는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노년층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과의 신뢰로운 관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검사 문항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60대 이상의 노인들은 '고민을 털어놓거나', '친밀한 대화를 나누거나', '내 말에 귀기울여 줄' 친구나 가족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고, 따라서 이들에게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Ryff(1989)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소들이 우리나라 일반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도 적합한 구조를 갖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성별 그리고 연령별로 살펴봄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6가지의 요인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지만 변별이 가능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가 우리나라 성인 남녀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떤 양상을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서구의 결과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국적 단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들 대상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동질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또한 비록 응답자의 연령별 구성비율이 일반적인 비율과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노년층에서의 결과를 분석·해석하기에는 각 연령층의 응답자가 수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도 갖는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전국적 단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소·성은현·김혜원(1999). 한국 기혼여성(아줌마)들의 성격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41-55.
- 김혜원·김명소(2000).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분

- 석.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5(1), 27-41.
- 조명한·차경호(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48집. 서울 : 집문당.
- 차경호(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18(Dec.), 575-595.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 Plenum.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 Aldine.
- Cantril, H. (1965).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New Brunswick, N. J. : Rutgers University Press.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Christopher, J. C.(1999). Situation of psychological well-being : Exploring the cultural roots of its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 141-152.
- Diener, E.(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Diener, M.(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Diener, E., Emmons, R. S.,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 Larsen, R. J. (1993). The experience of emotional well-being. In M. Lewis & J. M. Haviland (Eds.), *Handbook of emotions*. New York : Guilford Press.
- Diener, E., Suh, E., Lucas, R., & Smith, H.(1999). Subjective well-being :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ener, E. & Suh, S. M.(2000).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assachusetts : MIT Press.
- Emmons, R. A. & Diener, E.(1986). Influence of impulsivity and sociability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211-1215.
- Emmons, R. A., & Diener, E. (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89-97.
- Gilligan, C. (1993).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 Pr.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4th ed.), Prentice-Hall, Inc.
- Hofstede, G.(1991). *Culture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세계의 문화와 조직). 차재호, 나은영 공역(1995). 서울 : 학지사.
- Joreskog, K. G. & Sorbom, D.(1993). *New features in LISREL 8*.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Inc.
- Kwan, V. S. Y., Bond, M. H. & Singelis, T. M.(1997). Pancultur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38-1051.
- Markus, H. & Kitayama, S.(1991). Culture and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pp.224-253.
- McCrae, R. R., & Costa, P. T., Jr.(1991). Adding *Liebe und arbeit* : The full five-factor model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227-232.
- Medley, M. L.(1980), Life satisfaction across four stages of adults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1, 193-209.

- Myers, D. G. & Diener, E.(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Oishi, S., Diener, E. F., Lucas, R. E., & Shu, E. M. (1999).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80-990.
-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64-172.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 559.
- Schmutte, P. S. & Ryff, D. C.(1997). Personality and well-being : What is the conn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 Shin, D.C. & Johnson, D.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 Stock, W. A., Okun, M. A., & Benin, M. (1986).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1, 91-102.
- Triandis, H. C.(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 Westview Press.

부록 1.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Ryff, 1989, p. 1072에서 인용)

차 원	점 수	정 의
자아수용 (self-acceptance)	높은 점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자신에게 좋은 점들은 물론 나쁜 점들을 포함한 자신의 여러 측면들을 인지하고 수용한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낀다.
	낮은 점수	자신에 대하여 불만족한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실망한다; 자신의 갖고 있는 나쁜 점에 대하여 괴로워한다; 현재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긍정적 대인관계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높은 점수	타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럽고, 신뢰로운 관계를 갖고 있다; 타인의 행복(welfare)에 관심이 있다; 강한 애정, 친밀감,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다; 대인관계란 주고 받는 것임을 이해한다.
	낮은 점수	타인과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타인에 대하여 따뜻하거나 개방적이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대인관계에서 고립되고 좌절감을 느낀다; 타인과의 중요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타협하려하지 않는다.
자율성 (autonomy)	높은 점수	결단력이 있고 독립적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을 내적 동기에 의해 조절한다; 개인적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한다.
	낮은 점수	타인의 평가나 기대에 대하여 걱정한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타인의 판단에 의존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동조한다.
환경에 대한 통제력 (environmental mastery)	높은 점수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복잡한 외적인 활동 계획을 잘 조절한다; 주위에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개인적 필요나 가치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낮은 점수	일상적인 일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주위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없다고 느낀다; 주위에 있는 기회를 인식하지 못한다; 외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삶의 목적 (purpose in life)	높은 점수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갖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 생활에 목표와 목적이 있다.
	낮은 점수	삶의 의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삶의 목표나 방향 감각이 거의 없다; 과거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 삶에 의미를 부여할 신념이나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개인적 성장 (personal growth)	높은 점수	계속적으로 발달한다고 느낀다;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되어 감을 느낀다;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이다;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고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과 자신의 행동이 향상됨을 느낀다; 자기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간다.
	낮은 점수	개인적인 침체에 빠져있다고 느낀다; 시간에 따라 성장이나 발전되어 감을 느끼지 못한다;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낀다; 새로운 태도나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느낀다.

부록 2. 문항내용

1.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EM1)
2. 현재의 내 활동반경(생활영역)을 넓힐 생각이 없다.(PG1)
3. 살아 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SA1)
4. 남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PR1)
5.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AU1)
6.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힘들다.(EM2)
7.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PL1)
8.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SA2)
9.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PR2)
10.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AU2)
11. 과거에는 나 자신이 혼자 목표를 세우곤 했으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시간 낭비였던 것 같다.(PL2)
12.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같다.(SA3)
13.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PR3)
14.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EM3)
15.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AU3)
16.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EM4)
17. 나 자신과 인생살이에 자극을 줄 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G2)
18. 가끔 매일 하는 일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PL3)
19.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SA4)
20.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은 많지 않다.(PR4)
21. 나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편이다.(AU4)
22. 지난 세월을 되돌아 보면, 내 자신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PG3)
23.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PL4)
24.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일이 매우 잘되었다고 생각한다.(SA5)
25. 나는 일반적으로 나의 개인문제나 돈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EM5)
26. 많은 면에서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 실망을 느낀다.(SA6)
27.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친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PR5)
28. 미래의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즐긴다.(PL5)
29. 내 의견이 비록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경우에도, 나는 내 의견이 옳다고 확신한다.(AU5)
30. 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을 제 때에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EM6)
31. 그 동안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PG4)
32. 내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PL6)
33.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한다.(AU6)
34. 현재의 생활방식을 바꿔야 할 새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PG5)
35. 나는 인생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PL7)
36. 친구와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나의 결정을 쉽게 바꾸는 편이다.(AU7)
37.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었다.(PG6)
38. 내 친구들은 믿을 수 있고, 그들도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PR6)
39. 과거를 돌이켜 보면 좋았던 때도 있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SA7)
40. 생활을 만족스럽게 꾸려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EM7)
41. 내 인생을 크게 개선하거나 바꾸겠다는 생각은 오래 전에 버렸다.(PG7)
42. 내 자신을 친구나 친지들과 비교할 때면 내 자신에 대해 흐뭇하게 느껴진다.(SA8)
43. 내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 내 자신을 평가하지, 남들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AU8)
44. 내 가정과 생활방식을 내 맘에 들도록 꾸려 올 수 있었다.(EM8)
45. 이제껏 살아 온 삶의 방식을 뒤늦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PG8)
46.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깊은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PR7)

SA(self acceptance) = 자아수용,

PR(positive Relation) = 긍정적 대인관계,

PL(purpose in life) = 삶의 목적,

EM(environmental mastery) = 환경 지배력

AU(autonomy) = 자율성

PG(personal growth) = 개인적 성장

부록3-1. 분석에 사용된 공변량 행렬

변인	PR2	PR3	PR4	PR5	PR6	PR7	SA8	PG9			
PR1	SA2	SA3	SA4	SA5	SA6	SA7	SA8				
SA1	AU2	AU3	AU4	AU5	AU6	AU7	AU8				
AU1	EM2	EM3	EM4	EM5	EM6	EM7	EM8				
EM1	PL2	PL3	PL4	PL5	PL6	PL7	PL8				
PL1	PG2	PG3	PG4	PG5	PG6	PG7	PG8	PG9			
PG1											
1.000											
0.244	1.000										
0.157	0.307	1.000									
0.331	0.237	0.235	1.000								
0.091	0.279	0.420	0.248	1.000							
0.111	0.332	0.457	0.223	0.372	1.000						
0.284	0.231	0.352	0.339	0.304	0.195	1.000					
0.094	0.105	0.177	0.163	0.152	0.111	0.157	1.000				
0.278	0.292	0.282	0.333	0.205	0.226	0.287	0.296	1.000			
0.051	0.251	0.282	0.198	0.247	0.346	0.169	0.219	0.285	1.000		
0.178	0.233	0.236	0.258	0.194	0.271	0.242	0.238	0.301	0.247	1.000	
0.148	0.182	0.277	0.310	0.191	0.216	0.308	0.383	0.330	0.275	0.307	1.000
0.207	0.282	0.296	0.235	0.245	0.379	0.216	0.257	0.338	0.276	0.304	0.422
1.000											
0.201	0.202	0.249	0.361	0.197	0.215	0.392	0.327	0.362	0.137	0.239	0.454
0.330	1.000										
0.235	0.119	0.174	0.277	0.160	0.147	0.298	0.357	0.317	0.154	0.310	0.354
0.290	0.441	1.000									
0.090	0.211	0.137	0.236	0.138	0.140	0.113	0.117	0.373	0.153	0.251	0.244
0.169	0.203	0.176	1.000								
0.071	0.037	0.096	0.128	-0.006	0.073	0.076	0.131	0.239	0.071	0.238	0.104
0.121	0.100	0.114	0.348	1.000							
0.081	0.336	0.253	0.010	0.162	0.256	0.031	0.147	0.221	0.253	0.184	0.159
0.270	0.064	0.035	0.224	0.211	1.000						
0.129	0.178	0.116	0.070	0.097	0.179	0.055	0.037	0.233	0.200	0.142	0.080
0.212	0.027	0.077	0.225	0.240	0.313	1.000					
0.114	0.121	0.121	0.216	-0.014	0.082	0.086	0.046	0.281	0.072	0.196	0.113
0.107	0.180	0.196	0.397	0.270	0.074	0.118	1.000				
0.048	0.225	0.177	0.162	0.277	0.234	0.141	0.031	0.289	0.231	0.224	0.141
0.263	0.175	0.147	0.445	0.177	0.235	0.297	0.190	1.000			
-0.000	0.108	0.091	0.048	0.078	0.110	0.054	-0.016	0.192	0.128	0.062	0.059
0.195	0.101	0.076	0.277	0.228	0.081	0.202	0.222	0.329	1.000		
0.155	0.112	0.093	0.120	0.085	-0.014	0.170	0.074	0.247	0.087	0.118	0.140
0.098	0.156	0.210	0.209	0.276	0.172	0.179	0.195	0.196	0.219	1.000	
0.450	0.163	0.190	0.274	0.137	0.084	0.312	0.144	0.333	0.076	0.172	0.198
0.223	0.212	0.161	0.203	0.192	0.104	0.183	0.155	0.173	0.132	0.177	1.000
0.043	0.275	0.355	0.158	0.224	0.296	0.125	0.209	0.201	0.293	0.157	0.229
0.307	0.198	0.076	0.095	0.125	0.235	0.105	0.027	0.111	0.076	0.005	0.117
1.000											
0.255	0.218	0.113	0.352	0.134	0.201	0.247	0.272	0.340	0.205	0.344	0.348
0.283	0.303	0.315	0.278	0.242	0.150	0.174	0.202	0.192	0.056	0.114	0.313
0.204	1.000										
0.029	0.177	0.301	0.046	0.233	0.279	0.060	0.192	0.177	0.348	0.244	0.237
0.307	0.110	0.088	0.144	0.106	0.303	0.206	0.048	0.207	-0.002	0.059	0.105
0.514	0.158	1.000									
0.166	0.149	0.164	0.293	0.102	0.180	0.163	0.306	0.318	0.134	0.270	0.440
0.335	0.324	0.323	0.243	0.119	0.161	0.099	0.199	0.179	0.026	0.079	0.255
0.190	0.358	0.193	1.000								
0.235	0.221	0.199	0.347	0.177	0.204	0.268	0.145	0.293	0.203	0.289	0.316
0.267	0.281	0.333	0.294	0.230	0.090	0.121	0.285	0.237	0.138	0.144	0.319
0.159	0.484	0.111	0.369	1.000							
0.033	0.198	0.222	0.135	0.217	0.180	0.070	0.214	0.137	0.234	0.197	0.195
0.271	0.127	0.200	0.082	0.026	0.121	0.121	0.048	0.177	0.114	0.001	0.044
0.301	0.051	0.347	0.093	0.100	1.000						
0.121	0.159	0.144	0.180	0.094	0.091	0.229	0.266	0.227	0.097	0.143	0.263
0.216	0.347	0.390	0.242	0.035	0.007	0.014	0.166	0.179	0.128	0.249	0.175

부록3-2.

0.077	0.112	0.065	0.317	0.287	0.211	1.000						
0.122	0.276	0.318	0.240	0.203	0.278	0.181	0.087	0.382	0.307	0.107	0.233	
0.277	0.250	0.121	0.196	0.065	0.185	0.256	0.148	0.234	0.129	0.048	0.229	
0.260	0.162	0.228	0.215	0.163	0.095	0.154	1.000					
0.080	0.170	0.172	0.140	0.092	0.218	0.093	-0.027	0.110	0.268	-0.100	-0.000	
0.182	0.058	0.013	-0.021	-0.106	0.099	0.085	0.050	0.163	0.086	-0.003	0.131	
0.085	0.015	0.083	0.126	0.075	0.093	0.087	0.372	1.000				
0.103	0.175	0.227	0.124	0.138	0.197	0.043	0.121	0.264	0.257	0.135	0.188	
0.314	0.207	0.171	0.121	0.189	0.203	0.244	0.052	0.238	0.156	0.179	0.174	
0.307	0.207	0.331	0.146	0.178	0.246	0.103	0.263	0.157	1.000			
0.124	0.286	0.305	0.212	0.270	0.245	0.231	0.177	0.412	0.317	0.182	0.348	
0.407	0.274	0.233	0.266	0.120	0.266	0.327	0.108	0.317	0.237	0.136	0.255	
0.267	0.177	0.270	0.256	0.227	0.219	0.196	0.465	0.253	0.328	1.000		
0.136	0.154	0.264	0.085	0.200	0.275	0.227	0.159	0.243	0.201	0.195	0.224	
0.449	0.161	0.193	0.136	0.099	0.235	0.228	0.115	0.224	0.155	0.037	0.214	
0.230	0.193	0.219	0.260	0.210	0.182	0.156	0.232	0.231	0.183	0.331	1.000	
0.151	0.193	0.218	0.321	0.133	0.153	0.280	0.117	0.326	0.172	0.225	0.295	
0.247	0.315	0.254	0.219	0.153	0.069	0.066	0.200	0.200	0.117	0.188	0.263	
0.133	0.252	0.137	0.269	0.341	0.087	0.311	0.283	0.178	0.135	0.318	0.190	
1.000												
0.248	0.118	0.154	0.298	0.103	0.140	0.294	0.172	0.332	0.227	0.201	0.280	
0.301	0.283	0.337	0.250	0.154	0.080	0.123	0.222	0.271	0.216	0.164	0.367	
0.159	0.378	0.130	0.332	0.520	0.105	0.225	0.236	0.107	0.229	0.272	0.219	
0.472	1.000											
0.237	0.191	0.227	0.311	0.149	0.181	0.307	0.218	0.415	0.202	0.182	0.303	
0.298	0.342	0.264	0.268	0.178	0.122	0.078	0.256	0.252	0.191	0.177	0.312	
0.140	0.226	0.096	0.255	0.312	0.144	0.297	0.334	0.208	0.164	0.421	0.195	
0.442	0.405	1.000										
-0.018	0.174	0.190	0.120	0.116	0.106	0.156	-0.161	0.109	0.174	0.022	0.065	
0.130	0.052	0.020	0.067	0.010	0.070	0.012	0.098	0.156	0.203	0.057	0.094	
0.082	-0.023	0.007	0.006	0.085	0.049	0.074	0.326	0.258	0.084	0.184	0.129	
0.198	0.112	0.241	1.000									
-0.032	-0.005	-0.001	-0.070	0.012	-0.052	-0.032	-0.400	-0.060	-0.051	-0.121	-0.173	
-0.055	-0.195	-0.221	-0.040	-0.051	-0.034	0.017	-0.010	0.076	0.161	-0.042	0.038	
-0.080	-0.226	-0.093	-0.142	-0.132	-0.045	-0.134	0.170	0.142	-0.030	0.005	0.036	
-0.023	-0.073	0.012	0.368	1.000								
0.106	0.050	0.056	0.243	0.015	-0.009	0.156	-0.038	0.215	0.031	0.124	0.059	
0.044	0.159	0.071	0.123	0.073	-0.072	-0.049	0.127	0.040	0.080	0.086	0.195	
-0.048	0.030	-0.086	0.064	0.103	-0.061	0.160	0.161	0.051	-0.077	0.085	0.032	
0.179	0.140	0.246	0.220	0.219	1.000							
0.106	0.286	0.285	0.191	0.264	0.273	0.203	0.331	0.295	0.332	0.244	0.384	
0.529	0.300	0.277	0.241	0.080	0.319	0.226	0.102	0.277	0.194	0.090	0.114	
0.243	0.193	0.295	0.224	0.150	0.348	0.194	0.233	0.124	0.293	0.503	0.390	
0.246	0.233	0.321	0.100	-0.105	0.017	1.000						
0.153	0.151	0.177	0.352	0.226	0.159	0.315	0.337	0.402	0.215	0.259	0.459	
0.407	0.470	0.454	0.280	0.106	0.104	0.108	0.175	0.265	0.118	0.121	0.188	
0.167	0.314	0.177	0.312	0.417	0.250	0.375	0.239	0.064	0.271	0.392	0.264	
0.403	0.454	0.431	0.079	-0.181	0.153	0.495	1.000					
0.073	0.174	0.165	0.059	0.162	0.160	0.114	-0.043	0.208	0.124	0.099	0.096	
0.251	0.047	0.100	0.150	0.098	0.184	0.149	0.033	0.274	0.258	0.058	0.101	
0.153	0.068	0.094	0.133	0.099	0.142	-0.035	0.215	0.140	0.146	0.228	0.179	
0.158	0.133	0.184	0.285	0.281	0.151	0.157	0.119	1.000				
0.198	0.168	0.197	0.320	0.151	0.114	0.357	0.123	0.361	0.232	0.164	0.295	
0.255	0.357	0.293	0.213	0.135	0.061	0.109	0.199	0.207	0.188	0.173	0.291	
0.114	0.209	0.084	0.211	0.320	0.127	0.296	0.318	0.112	0.237	0.336	0.123	
0.395	0.343	0.510	0.243	0.019	0.231	0.295	0.415	0.209	1.000			
0.090	0.086	0.120	0.088	0.120	0.075	0.146	-0.068	0.211	0.123	0.066	0.103	
0.226	0.131	0.064	0.156	0.084	0.103	0.079	0.126	0.242	0.258	0.105	0.202	
0.152	0.023	0.116	0.038	0.030	0.183	0.124	0.340	0.255	0.170	0.277	0.244	
0.232	0.140	0.337	0.358	0.313	0.219	0.180	0.149	0.269	0.298	1.000		
-0.003	0.016	0.086	0.053	0.090	0.090	0.077	-0.130	0.069	0.110	-0.012	0.009	
0.139	-0.045	-0.012	-0.062	0.015	0.043	0.116	0.027	0.150	0.180	-0.011	0.077	
0.133	-0.063	0.092	-0.070	0.046	0.170	-0.075	0.193	0.224	0.134	0.152	0.144	
0.169	0.067	0.151	0.296	0.306	0.197	0.074	0.047	0.340	0.235	0.420	1.000	

부록4. 6요인 모델-PG를 8문항으로 구성

LAMBDA-X							
	PR	SA	AU	EM	PL	PG	SMC
PR1	0.401	--	--	--	--	--	0.161
PR2	0.518	--	--	--	--	--	0.268
PR3	0.586	--	--	--	--	--	0.343
PR4	0.589	--	--	--	--	--	0.347
PR5	0.480	--	--	--	--	--	0.230
PR6	0.526	--	--	--	--	--	0.276
PR7	0.564	--	--	--	--	--	0.318
SA1	--	0.400	--	--	--	--	0.160
SA2	--	0.667	--	--	--	--	0.445
SA3	--	0.471	--	--	--	--	0.222
SA4	--	0.483	--	--	--	--	0.234
SA5	--	0.608	--	--	--	--	0.369
SA6	--	0.648	--	--	--	--	0.420
SA7	--	0.581	--	--	--	--	0.337
SA8	--	0.525	--	--	--	--	0.275
AU1	--	--	0.643	--	--	--	0.413
AU2	--	--	0.418	--	--	--	0.175
AU3	--	--	0.453	--	--	--	0.205
AU4	--	--	0.442	--	--	--	0.195
AU5	--	--	0.448	--	--	--	0.201
AU6	--	--	0.642	--	--	--	0.412
AU7	--	--	0.418	--	--	--	0.175
AU8	--	--	0.389	--	--	--	0.151
EM1	--	--	--	0.473	--	--	0.223
EM2	--	--	--	0.428	--	--	0.183
EM3	--	--	--	0.531	--	--	0.282
EM4	--	--	--	0.407	--	--	0.166
EM5	--	--	--	0.526	--	--	0.277
EM6	--	--	--	0.576	--	--	0.331
EM7	--	--	--	0.358	--	--	0.128
EM8	--	--	--	0.435	--	--	0.189
PL1	--	--	--	--	0.522	--	0.272
PL3	--	--	--	--	0.432	--	0.187
PL4	--	--	--	--	0.640	--	0.410
PL5	--	--	--	--	0.466	--	0.217
PL6	--	--	--	--	0.552	--	0.305
PL7	--	--	--	--	0.576	--	0.332
PL8	--	--	--	--	0.619	--	0.383
PG1	--	--	--	--	--	0.282	0.079
PG3	--	--	--	--	--	0.228	0.052
PG4	--	--	--	--	--	0.642	0.412
PG5	--	--	--	--	--	0.709	0.502
PG6	--	--	--	--	--	0.345	0.119
PG7	--	--	--	--	--	0.615	0.378
PG8	--	--	--	--	--	0.391	0.153
PG9	--	--	--	--	--	0.210	0.044

부록5. 7요인 모델-PG(변화지)를 5문항으로, AC(성취감)를 3문항으로 구성

LAMBDA-X								
	PR	SA	AU	EM	PL	PG	AC	SMC
PR1	0.400	--	--	--	--	--	--	0.160
PR2	0.518	--	--	--	--	--	--	0.268
PR3	0.586	--	--	--	--	--	--	0.343
PR4	0.589	--	--	--	--	--	--	0.346
PR5	0.480	--	--	--	--	--	--	0.230
PR6	0.526	--	--	--	--	--	--	0.277
PR7	0.564	--	--	--	--	--	--	0.318
SA1	--	0.409	--	--	--	--	--	0.167
SA2	--	0.662	--	--	--	--	--	0.438
SA3	--	0.469	--	--	--	--	--	0.220
SA4	--	0.483	--	--	--	--	--	0.233
SA5	--	0.610	--	--	--	--	--	0.372
SA6	--	0.645	--	--	--	--	--	0.416
SA7	--	0.583	--	--	--	--	--	0.340
SA8	--	0.528	--	--	--	--	--	0.279
AU1	--	--	0.640	--	--	--	--	0.410
AU2	--	--	0.417	--	--	--	--	0.174
AU3	--	--	0.452	--	--	--	--	0.204
AU4	--	--	0.442	--	--	--	--	0.195
AU5	--	--	0.448	--	--	--	--	0.200
AU6	--	--	0.644	--	--	--	--	0.414
AU7	--	--	0.422	--	--	--	--	0.178
AU8	--	--	0.388	--	--	--	--	0.151
EM1	--	--	--	0.469	--	--	--	0.220
EM2	--	--	--	0.426	--	--	--	0.181
EM3	--	--	--	0.533	--	--	--	0.284
EM4	--	--	--	0.407	--	--	--	0.166
EM5	--	--	--	0.527	--	--	--	0.278
EM6	--	--	--	0.576	--	--	--	0.332
EM7	--	--	--	0.357	--	--	--	0.128
EM8	--	--	--	0.436	--	--	--	0.191
PL1	--	--	--	--	0.5242	--	--	0.275
PL3	--	--	--	--	0.432	--	--	0.187
PL4	--	--	--	--	0.640	--	--	0.409
PL5	--	--	--	--	0.466	--	--	0.217
PL6	--	--	--	--	0.552	--	--	0.305
PL7	--	--	--	--	0.574	--	--	0.330
PL8	--	--	--	--	0.619	--	--	0.383
PG1	--	--	--	--	--	0.519	--	0.269
PG3	--	--	--	--	--	0.373	--	0.139
PG4	--	--	--	--	--	--	0.626	0.392
PG5	--	--	--	--	--	--	0.694	0.482
PG6	--	--	--	--	--	0.582	--	0.339
PG7	--	--	--	--	--	--	0.591	0.350
PG8	--	--	--	--	--	0.693	--	0.480
PG9	--	--	--	--	--	0.435	--	0.189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Myoung-So Kim, Hye-Won Kim and Kyeong-Ho Cha

Hoseo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tried to identify 1) if the six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suggested in Western cultures were similar in Korean culture, 2) the relationship between PWB and SWB, 3)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PWB and SWB was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nd age. A sample of 578 men and women(age of between 20s and 60s) completed a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showed that first, as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six-factor model was the best-fitting model in explaining PWB. Second, although both Self Acceptance and Environmental Mastery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all three factors of SWB as in the previous studies,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the factor that was not important in the studies in Western culture, was also important in explaining SWB. Third, with regarding with gender, Purpose in Life was relatively more important in predicting men's SWB whereas Personal Growth was relatively more important in predicting women's SWB. Also, Self Acceptance and Environmental mastery were important factors for other age groups' SWB whereas Personal Growth, 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Purpose in Life were important factors for older groups' SWB. Finally, results revealed in the present study were compared with previous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psychological well-being, subjective well-being, the structure of well-being

원고 접수: 2001년 6월 15일
심사 통과: 2001년 7월 13일